



위키백과에서 뉴비를 추구하면 안 되는걸까
(에디터톤을 중심으로)



위키백과 뉴비 수입 프로젝트





발표자 소개

- 위키백과 6년차 (흑역사 2년 미포함) 뉴비
- 위키백과 외부에서는 - 'O' 언론 외주 기자 + 대중교통 칼럼 집필 중
- 현재도 위키백과 어디에선가 편집할 문서를 찾아 수룩 중.
- 주요 편집 분야는 교통이나 전문분야는 지적



위키백과 뉴비 수입 프로젝트

- 2010년대까지 다양한 사용자 유입
- 경쟁 위키위키 사이트의 탄생과 편집 수, 페이지뷰 급증으로 인해 침체
- 위키백과의 전통적인 강점은 '전문정보'
- 전문적인 정보 (Ex- 법, 과학, 천문, 문화재)가 영어WP, 나무위키 보다 부족하다는 지적
- 그에 따라 한국어 커뮤니티에서는 기관과 협업해 '에디터 톤 행사'를 진행하고 있음



실제 진행된 에디터 톤의 예

- 사진 및 위키백과 문서로 설명합니다
- 1. 사실상 처음의 에디터톤 - 2011년
- 2. 광주 ACC 에디터톤
- 3. 서산시 에디터톤
- 4. 양정여고 에디터톤
- 5. 이화여자대학교 페미니즘 에디터톤
- 실제 유입된 사용자는 사실상 전무함.
극히 일부의 유저만이 유입



위키백과 뉴비 수입 프로젝트

- 에디터 톤의 성과로 여러 문서가 작성
- 광주 WCC 에디터 톤, 서산시 에디터 톤 진행했으나 실제 사용자로의 연결 어려움
- 실제 유입된 사용자가 극히 적어 단발성 및 일회성 이벤트에 그침
- 이는 위키백과에 문서만을 충족한 이후, 그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{{오래된 정보}}에 가까워지는 결과를 낳음



본격 프로젝트 - 어떻게?

- ❑ 에디터 톤이 너무 짧게 이루어짐이 문제
- ❑ 에디터 톤이 '새로운 사람'을 찾는 것으로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님이 문제
 - 에디터 톤이 단타의 '과제', '성과'에 집중, 위키백과 공동체에 대한 흥미를 갖지 못함
- 에디터 톤이 공동체로의 참여로 이어져야



수입 대책 - 공공기관 에디터톤

- 서산시 에디터 톤의 선례를 이어받는 것이 중요하되, 이미 충족된 행정 관련 정보 대신 문화재, 법 등 에디터 톤 진행
- 법무부,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(府)급 기관 협업 에디터 톤이 큰 효과 거둘 수 있음
- 실제로 생성된 사진 및 문서,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므로 일부 사용자(공무원)의 지속적 참여가 필수임을 안내해야



수입 대책 - 대사관 에디터 톤

- 위키백과에 익숙한 해외, 특히 영미권+유럽 대사관과의 협업으로 진행
 - 대사관의 홍보 직원 등이 한국어 위키백과에 관광 자료, 대상 국가의 문화자료 기여 진행
 - 해외 직원 중 위키백과 사용자 존재 시, 직접 에디터 톤 진행 전권을 맡기는 방안이 있음
- 한국어 WP에 부족한 세계 정보 공급 기대



수입 대책 - 대학 학부 에디터 톤

- 대학 전공과제는 자체를 위키백과 출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한 매체
 - 하지만 이들 전공, 교양 급에 충족할 수 있는 문서가 적어, 일반인의 궁금증 해소 어려움
 - 대학 학부가 1학기 단위 이상으로 에디터 톤 진행, 협회 방문 에디터 톤 등도 진행
 - 에디터 톤의 결과에 따라 협회 리워드 지급
- 적응한다면 장기적 사용자 도출될 수 있음



수입 대책 - 정치기관 에디터톤

- 정치인, 정치 관련 기관 (정당 등)에 대한 에디터톤 진행
 - 당직자, 정당 관련인 참여로 사진 등 첨부
 - 한국어 위키백과가 정치적인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선례가 있어, 이들 정치인, 당직자 대상 에디터톤은 논란을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음
- NPOV 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우선해야



수입 대책 - 일반 사용자 대상

- 일반 사용자 대상 에디터 톤의 진행 필요
- 위키백과의 비전문적인 내용을 보충하고자 하는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함이 효과적임
- 학술단체 등을 위시하여 전문적인 정보를 공급할 수 있는 유저 대상으로 단발적 진행 아닌 에디터 톤 진행
- 완전한 일반 사용자 대상으로 언론사 등을 통한 홍보 필요
- 실질적인 사용자를 이끌 수 있음



수입 대책 - 장기 에디터 톤

- 장기적인 에디터 톤을 진행
- 단순히 과제, 미션에 그치지 않고 새 유저로 '유입될 수 있는 방안 연구'
- 관심이 있는 사용자를 미리 수취해 여러 회, 최소한 4회 이상의 고정 에디터 톤 진행
- 협회 명의 리워드 지급으로 관심 고취
- 단시간에 편집이 어려운 공학, 과학, 법 등 전문분야 확충에도 용이



수입 대책 - 기존 사용자는?

- ❑ 에디터 톤 진행을 미리 사용자에게 고지
 - ❑ 잘못된 문서가 있어도 지켜보는 자세 필요
 - ❑ 가장 먼저 '관용' 정신이 중요
 - ❑ 편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시 -
에디터 톤의 총책임자과의 대화 우선
 - ❑ 실제 유입되는 신규 사용자 배척하지 않기
- 더 많은 신규 사용자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게



기대효과

- 더 많은 사용자 유입, 더 많은 정보 확대
 - 위키백과와 관련된 외부에서의 오해 축소
 - 실제 사용자들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효과
 - 더욱 많은 문서가 한국어 위키백과에 추가, 위키백과 정보 자체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
- 문서 수보다, 정보의 질을 높일 수 있고, 더욱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용자 '수입'



진심으로 감사합니다.